

필리핀, 부실채권 처리의 급진전 기대

국별조사실

□ 자산관리회사(SPAV : Special Purpose Asset Vehicle)법 제정

- 지난 1월,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산관리회사법 제정을 승인함.
 - SPAV는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의 60%는 자국거주자가 소유토록 하며, 수권자본 5억 페소, 불입자본 3,125만 페소의 규모자격을 갖추어야됨.
 - 부실채권 처리시 인지세, 원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와 수수료 감면 조치로 부실자산 처분을 원활하게 함.
 - 이러한 우대조치는 은행에 2년, SPV에 5년간 적용될 예정임.
- 비교적 변경이 용이한 행정령 제정을 통한 조속한 실시도 고려하였으나,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을 위하여 1년 반에 걸쳐 보다 강제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차후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재무부, 중앙은행 등이 참여할 예정임.

□ 필리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지금까지 필리핀은 기타 아시아국가들과는 달리 비교적 소극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번 정부의 SPAV 법안을 통해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필리핀 경제에 다음과 같

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첫째, 부실채권 감소로 금융 부문의 리스크를 해소함.
 -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후 98년 부실채권의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2.2배나 증가한 1,600억 페소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 9월 현재 부실채권은 3,170억 페소(약 63억 달러)에 달해 부실채권 비율이 17%를 상회함.
 - 정부는 SPAV법 시행으로 6개월 안에 37억 달러 규모의 부실채권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년 후에 부실채권 비율은 1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둘째, 부실채권 감소로 자본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2002년 9월 기준, 총 대출액 규모가 1조 6,239억 페소인데 이는 97년 말보다 불과 3.2% 증가한 수치이며, 2001년 말 보다는 0.1% 감소하여 여신증가세가 주춤함. 그러나 부실채권 처리로 총당금적립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면 기업투자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셋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함.
 - 법안 시행 자체가 외국인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의 확대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현재 Deutsch Bank와 JP Morgan 등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전문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